



연중 제3주일
하느님의 말씀 주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카라바조, 〈성 바오로의 회심〉(The Conversion of Saint Paul), 1600~1601
산타 마리아 델 포폴로(Santa Maria del Popolo)성당, 로마



“말씀”과 “예언자”

인생은 ‘순리대로’, 그리고 ‘이치에 맞게’ 살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하늘의 뜻, 하느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다. 그분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셨으므로 그분께서 박아 두신 순리대로 살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사람 안에서는 ‘탐욕’, 그리고 밖에서는 ‘유혹’, 우리를 창조주께서 질서 지으신 뜻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한다. 인류의 첫 범죄를 보자. 하와와 아담은 유혹자의 부추기는 말에 귀가 솔깃해져서 하느님께서 금지하신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았다. 순간, 하느님을 의심하고 그분보다 더 위대해지고 싶어서 그분 분부하심을 거역하는 우를 범하고 만 것이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범하는 죄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심각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대유행도 인간의 편리함과 수익창출을 위해 다른 인간들과 자연을 함부로 다루어 온 결과이며 그야말로 ‘세상의 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언자는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예언자의 가장 큰 보람은 자신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비로소 성취될 때일 것이다. 요나가 이민족의 수도 니네베에 가서 “이제 사십 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하고 외치자 니네베 사람들이 회개하였다. 결과적으로 니네베 사람들이 재앙을 면하게 되었다는 해피엔딩이다. 그런데 요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불만이 많았다. 하느님께서 자비하신 분이시라 인간이 부르짖고 회개하면 쉬이 용서하시고 재앙을 거두실지 알았기 때문이다. 부르심을 피해 배를 타고 가다 폭랑을 만나고 고래 배 속에서 사흘을 보냈다. 결국은 니네베로 가서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회개하자 하느님께서 재앙을 거두셨다. 또 요나는 기분이 몹시 상했다. 자신이 실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 요나도 하느님께서 는 아주까리 나무 아래서 달래셨다.

요나에게는 이 모든 문제가 자신의 생각과 성품의 문제였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이 하느님 말씀을 전하다가 박해받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겼던가! 때로는 임금과 권력자들로부터, 때로는 대중들로부터 지탄과 원성을 받아야 했다. 그렇게 하느님 말씀과 예언자를 거부했던 자들의 결과는 참혹했다.

오늘은 ‘하느님의 말씀 주일’이다. 우리는 모두 예언자들을 통해 전해진 하느님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실천해야 한다. 그분 말씀은 우리를 진리와 행복으로 이끌어 준다. 그분 말씀은 지쳐 있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슬퍼하는 우리에게 위로를, 그리고 인생의 기로에 설 때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 물론 말씀대로 살기란 쉽지가 않다. 내 안에서 말씀이 미처 다 납득되지 않을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의 저항과 오해에 부딪힐 수도 있다.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첫 제자들처럼 자기 모든 것, 생계와 심지어 가족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느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진리와 사랑으로 이끌기에 주저 없이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바로 예언자다!



하춘수 레오 신부 | 여좌동본당 주임



제 1 독 서	요나 3,1-5,10
화 답 송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소서.
제 2 독 서	1코린 7,29-31
복 음	마르 1,14-20

주일 진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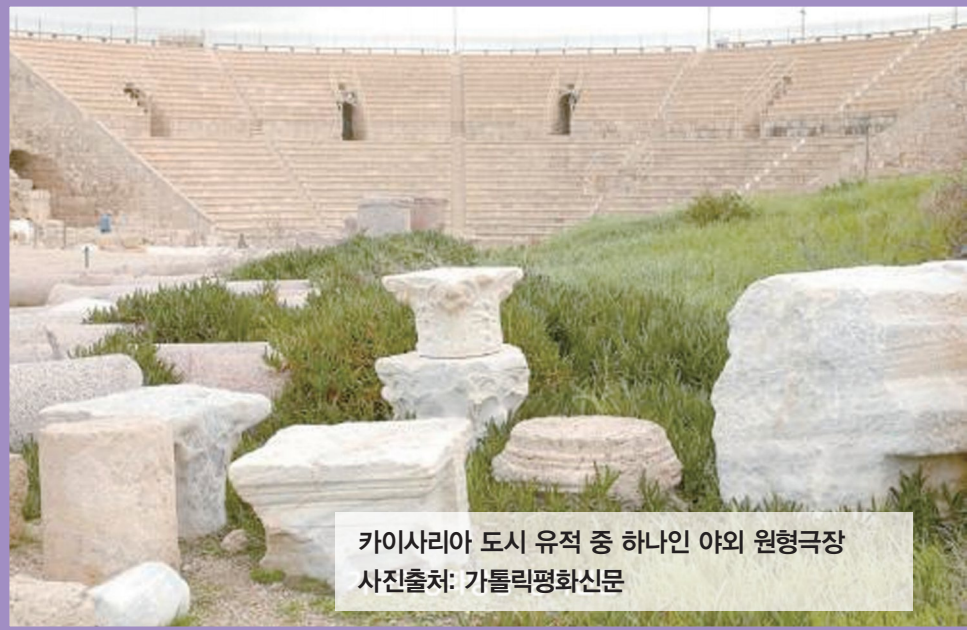
신약성경

사도행전 읽기 19

염철호 요한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황제에게 상소함(25,1-12)

바오로가 총독 주둔지였던 바닷가의 카이사리아에 감금된 지 두 해가 지난 뒤인 기원후 60년경 포르키우스 페스트스가 펠릭스 총독 후임으로 부임합니다(24,27). 신임 총독은 바오로의 이야기를 들은 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유대인들의 요청에 따라 바오로를 내주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오로를 죽이려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달라고 청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오로는 총독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설파하며 황제 앞에서 재판 받겠다고 선언합니다.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것이 로마 시민의 권리였고, 바오로는 이 권리를 사용하여 예루살렘이 아니라 황제, 곧 로마에 올라가고자 합니다. 총독은 이 상소를 거절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바오로를 로마로 송환하기로 합니다.



카이사리아 도시 유적 중 하나인 야외 원형극장
사진출처: 가톨릭평화신문

아그리파스 앞에서의 변론(25,13-26,32)

페스트스 총독은 종교적인 이유를 제외하고는 바오로를 감옥에 가두거나 사형에 처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총독이라 하더라도 이유 없이 죄 없는 로마 시민을 가두거나, 황제에게 상소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갈릴래아 영주로 잠시 카이사리아를 방문한 헤로데 아그리파스 2세 임금에게 바오로와 관련된 특이한 사항이 없는지 묻습니다. 이 임금은 사도 12,20-23에서 죽은 헤로데 아그리파스 1세의 아들인 라그리파스 2세입니다.

아그리파스는 바오로뿐만 아니라 새로운 길인 그리스도교에 관해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들은 바가 있어 호기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오로를 불러내어 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오로는 이 기회를 이용해 다시 한 번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냅니다. 여기서 다시 바오로의 회심 이야기가 요약되는데,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앞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도 조금 담겨 있습니다. “뾰족한 막대기를 차면 너만 아프다.”(26,14)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면 결국 다치는 것은 자신이라는 말인데, 이를 통해 바오로는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이 겪게 될 결말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이야기를 읽다 보면 바오로가 마치 페스트스 총독과 아그리파스 임금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그들은 바오로의 이야기를 듣기를 결국 거부합니다만, 이방인 선교를 위해 많은 선교여행을 떠난 바오로의 모습이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바오로의 이야기를 들은 아그리파스와 페스트스 임금은 바오로가 죄가 없음을 확인해 줍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바오로와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다시 한 번 선언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세상 무책임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러했듯이 바오로도 풀어주지 않고 죄인의 모습으로 내버려 둡니다.

지평과 초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조민아 마리아 교수/ 조지타운대학교

정인 양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크다. “#정인아 미안해” 해시태그 운동과 부모인 장씨, 안씨에게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각종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제안들도 쏟아지고 있다. 그 작은 몸이 멍들고 부서지고 깨지고 끊어질 때까지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악질적이고, 그에 대한 공분은 당연하며, 이러한 아동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강화하는 일은 물론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러나 우리의 분노가 아동학대 ‘근절’로 이어지려면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따라야 하지 않을까.

아동학대에 대한 불편한 진실은 깊고 오래다. 부모의 학대와 폭력으로 짧은 생을 마감한 수많은 정인 양들의 이야기는 알려진 것보다 잊혀진 것이 더 많다. 지난 2020년 10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에 학대로 숨진 아동은 42명에 달하며, 그중에서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제한적인 1세 미만의 아동들이 절반에 가까운 19명(45.2%)이다. 42명의 아동을 살해한 가해자는 53명으로 이 중 친부모가 46명이다(2021년 1월 14일 오마이뉴스 기사 “수많은 ‘정인아들’ 절반이 1세 미만...그럼에도 집행유예 나오는 까닭” 참고). 아동 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은 팬데믹 발생과 더불어 더 빈번해지고 더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물리적 거리가 좁혀지자 오히려 폭력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부모들이 악하기 때문일까?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아서일까? 내 생각은 다르다. 아동 폭력은 사랑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폭력이 아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세월 정당화되어 왔던 가정 내 권력이 폭력으로 전화하는 것이다.

아이를 “사랑으로 보살펴야 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흔히 아이에 대한 ‘애정’을 일컫는다. 이 애정은 사랑에 대한 낭만적인 정의, 즉 사랑을 신비화하는 관념에 맥락이 닿아 있다. 맹목적이고 무의식적이고 이성을 초월하는 사랑, 끊임없이 샘솟아 마르지 않는 사랑만이 ‘진짜’사랑이라 믿는 관념말이다. 이때의 사랑은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스레 우러나는 감정으로 감각과 느낌과 직관에 좌우되며,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애정을 주고



보살피는 것만이 사랑의 표현이며 의무라 믿게 한다. 그러나 감정에 몰두하는 것은 사랑의 한 요소일 뿐이다. 화학작용과 같은 그 신비로운 감정은 똑같은 강도로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또한, 자신이 누군가와 강력한 애정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게 하는 사랑은 이성과 의지, 행위 결정 능력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행동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소유와 집착, 지배와 복종까지도 열정적 사랑의 표현으로 용인하는 것이다. 아이에게 상처를 주거나 학대를 하면서도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말하며, 분명 잘못된 방식으로 아이를 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식에 대한 점검보다는 사랑이 부족하다는 자타의 결론으로 이어진다. 애정만으로 지탱해온 사랑에서 그 애정이 약해진다면, 부모 자식 사이라 해도 남는 것은 강자와 약자의 권력관계뿐이다. 정인 양을 입양하며 자연스레 ‘정이 불기’를 기대했던 장씨가 그 감정이 생기지 않자 결국 저지른 범죄를 보라. 낭만적인 사랑이 지배하는 친밀 관계는 폭력에 위태롭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사랑과 폭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는 문화, 아이를 지배하면서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고 믿는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문화이론가이자 사회운동가인 벨훅스(bell hooks)는, 정신 의학자 스캇펙(Scott Peck)의 이야기를 빌어 사랑이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자아를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그저 신비로운 감정이 아니라, 사랑하려는 의지를 통해 나와 상대의 성장과 확장을 기도하며 매 순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이다. 감정은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없지만 행동은 우리의 의지로 결정되고, 결과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반성과 변화와 성장이 수반된다. 이러한 사랑은 당사자 둘만의 관계에 국한될 수 없고 사회적 관계망, 나아가 사회적 정의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아이를 부모나 어른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며 아이가 가진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인정하도록 돕는다. 의지와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랑은 자연스레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학습에 의해 배워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 또한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환경이 우선 조성되어야 한다.

불편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 낭만적인 사랑의 관념은 친밀 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뿐 아니라, 신앙공동체 또한 위협한다. 생각해 보라. 낭만적 사랑은 하느님과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지배적인 관념으로 작용하지 않는가? 하느님을 만나고 사랑에 빠진 회심의 첫 체험, 그 강렬한 감정의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불안해하며, 뜨거운 그 느낌이 식으면 나약해지고 신앙의 활력을 잃었다고 상심한다. 하느님에 대한 낭만적인 열정은 신앙의 동기가 될 수 있겠지만, 신앙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진정으로 예수를 알고 사랑하고 그이를 닮아 사는 삶은 의심과 실망과 무기력과 혼돈의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매 순간 하느님을 향한 선택을 통해서만 가능한 평생의 여정이다. 예수의 사랑은 한여름 밤의 뜨거운 낭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사랑에 책임을 지기 위해 기어코 사람이 되었고 이에 따른 죽음까지 받아들였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의 그 사랑, 그 선택을 우리 일상생활의 윤리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낭만적인 사랑의 관념에 지배되어 있는 신앙공동체는 사랑하라는 말은 늘 주문처럼 읊지만 사랑에 관해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 그 안에 숨어 있는 권력과 폭력의 문제를 무시하고, 의지와 책임의식을 마비시키며, 단지 사랑하면 모든 것이 평화로우리라 가정하는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 유독 교회에서, 혹은 그리스도교 유사종교에서 성폭력, 아동 성폭력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잘못된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다.

2021 교구 사제·부제 서품식



2021년 교구 사제·부제 서품식이 1월 12일 오후 2시 주교좌 양덕동성당에서 거행되었다. 이번 서품식에서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는 2명의 부제를 사제로, 6명의 신학생을 부제로 서품하였다. 이날 서품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최소 인원으로 진행되었으며, 교구 사제단과 신자들은 교구 유튜브 방송으로 새 사제와 부제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였다.



박진용 프란치스코 신부

심정현 요한드라살 신부





일림

교구/본당

전국 총대리 회의

일시: 1월 27일(수)~28일(목) 1박 2일

장소: CBCK

복학예정 신학생 신체검사

일시: 1월 27일(수)

장소: 창원파티마병원

신입, 복학예정 신학생 피정

일시: 1월 27일(수)~28일(목)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고3 피정

일시: 2월 20일(토) 13:00~21일(주일) 14: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055·221·1891

주제: 잃어버린 나를 찾는 여정(중독과 회복)

강사: 홍성민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대상: 고등학교 졸업생

참가비: 1인 6만 원

(교구사목비 면제 본당 3만 원)

준비물: 필기구, 미사 준비(봉헌금), 세면도구

(수건), 간편한 복장(따뜻한 옷),

텀블러, 마스크

신청: 2월 7일(주일)까지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청년부' 검색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일시: 1월 27일(수) 19:00

장소: 교구청

문의: 교구 정평위 055·261·8201

수도회

재속프란치스코형제회 지원자 모집

성프란치스코의 가르침과 영성에 따라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실천하고자 교황청이 인준한 회칙과 회헌으로 서약생활을 하는 공동체

대상: 만55세 이하의 세례 받은 신자

문의: 봉사자 010·5230·1420,

서기담당 010·5911·8792

기타

2021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원서접수: 11월 16일(월)~2월 10일(수)까지
(우편신청가능)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

(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문의: 02·745·8339

홈페이지: ci.catholic.ac.kr(원서다운가능)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기간: 2월~12월(2월 예비학교)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교육비, 기숙사무료, 수당지급

문의: 02·828·3600/ 대상: 15세 이상 남

※ 최근 5년 평균 취업률 89.2%

가톨릭ON(생활성서 온라인 클래스)

클래스 오픈 기념: 얼리버드 할인 혜택 기간

1월 15일(금)~2월 14일(주일)

클래스 개강일: 2월 15일(월)

김혜윤 수녀(성경 본문 zoom in 구제사 편 1)/

김영선 수녀(늘푸른성경여정 구약 입문+창세기)/

박기석 신부(늘푸른성경여정 신약 예수그리스도 입

문)/ 김효준 신부(바이블 가이드:성경 입문 가이드)/

박형순 신부(지혜 여정 이삭야, 다니엘, 요나서)

문의: 010·3092·1108, www.catholicon.co.kr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장소: 마음의집(창원시 도계동)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
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010·3551·2038

가톨릭상담심리사 3급 자격과정 안내

일정: 3월 13일(토)~6월 12일(토), 7주간(42시간)
2, 4주(토) 09:00~16:00(6시간)

장소: 함안 우리농 교육장(경남 함안군 가야
읍 묘사1길 291-28 우리농 교육장)

수강료: 30만 원-KEB하나은행 160-

890028-51604 (재)마산교구, 입금으

로 접수 완료

접수: 2월 5일(금)까지

주관: 마산교구가톨릭상담심리학회

(http://cafe.daum.net/mscpa)

문의: 070·8877·3217, mscps@hanmail.net

■ 한국 성지 167완주 모집중
3월 22일 수원·청주교구 완주 4일

■ 제주 성지순례 3일
2월 15일/ 3월 5일, 15일/ 4월 5일, 9일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정상훈 미카엘)

가톨릭마산

교구보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 문의: 홍보국 055)249-7072

Enjoy your life
AV Team (주)AV팀 Since 2005~
avteam.co.kr

음향, 영상 시스템
설계/ 시공/ 방문 점검 및 컨설팅
김지훈 바오로 010-3243-5655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010-2652-0706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